

# 프로야구 1군 선수들 평균연봉 2억3987만원

**숫자로 본 2017 프로야구**  
**614명**  
 KBO 리그에 등록된 총 선수 수

**163cm**  
 최단신 삼성 김성윤 선수 키

**183cm**  
 선수 평균 키

**207cm**  
 최장신 두산 장민익 선수 키

**158명**  
 역대 연봉 선수 수(역대 최대)

**138,830,000원**  
 평균 연봉(신인·외국인선수 제외)

**2,500,000,000원**  
 롯데 이대호 선수 연봉(첫 20억원대 연봉)

**2,100,000달러**  
 두산 니퍼트 선수 연봉(역대 외국인선수 중 최고)

**17세 11개월 3일**  
 최연소 NC 이재용·KIA 김석환 선수 나이

**42세 8개월 23일**  
 최장수 KIA 최영필 선수 나이

자료/KBO 연합뉴스

## 숫자로 본 KBO

- ‘1억 이상’ 158명 역대 최대
- KIA 1억6989만원 38.8% ↑
- 롯데 이대호 25억 ‘연봉킹’
- KIA 최영필 42세 최고령
- 최단신 삼성 김성윤 163cm

올 시즌 한국프로야구 1군 선수들의 평균연봉이 역대 최대인 2억3987만원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의 ‘억대 연봉’ 선수 역시 역대 최대인 158명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9일 2017년 KBO리그 소속선수 등록 인원 및 연봉 등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KBO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 수는 지난해 31일 기준 감독 10명, 코치 226명, 선수 614명 등 총 850명이다. 신인이 56명, 외국인 선수가 28명이다.

포지션별로는 투수가 전체 48%에 달하는 29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내야수 150명(24.4%), 외야수 113명(18.4%) 순이다. 포수는 가장 적은 50명(8.1%)이다.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30명의 연봉 총액은 735억8000만원으로 평균 1억3883만원으로 지난해 평균연봉 1억2656만원보다 9.7% 상승했다.

지난 시즌 9위로 추락한 삼성과 최하위

kt를 제외한 8개 구단의 평균연봉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는 평균연봉이 1억8430만원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다. 평균연봉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구단은 넥센(9613만원), kt(7347만원) 두 팀이다.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큰손’으로 역할을 한 KIA는 지난해보다 38.8%가 오른 1억6989만원의 평균연봉을 찍으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1군 엔트리 등록 인원인 27명을 기준으로 한 구단별 연봉 상위 27명(외국인 선수 제외)의 평균연봉은 2억39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2억 고지를 넘었던 지난해(2억1620만원)보다 10.9%나 높아진 금액이다.

상위 27명의 연봉만을 놓고 계산을 해도 한화가 3억4159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한화와 함께 KIA(3억1837만원), 롯데 자이언츠(3억7077만원) 등 세 구단이 3억원 이상의 평균연봉을 기록했다.

1군 평균 연봉의 상승세와 맞물려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억대 연봉자’ 수도 지난해보다 10명이 증가한 158명이다.

6년 만에 KBO 리그에 복귀한 롯데 이대호가 사상 첫 20억원대를 넘어 역대 최대인 25억원으로 ‘연봉킹’ 자리에 올랐다. 15억 이상의 연봉을 포함해 한화 김태균(16억원), KIA 최형우·양현종(15억원) 등 4명이다. KIA 윤석민이 12억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는 11명이다.

자유계약 선수로 삼성에서 KIA로 이적한 최형우가 7억원에서 8억원의 연봉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2016년 한화 정우람(4억

원→12억원)의 역대 최고 인상 금액과 타이를 이뤘다. 양현종은 11년 차(2014년 강민호·2015년 최정 10억원) 최고연봉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인왕’ 신재영(넥센)은 연봉이 27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뛰면서 307.4%의 가장 높은 인상률을 찍었다.

현재 등록된 28명의 외국인 선수 중 ‘MVP’ 다스틴 니퍼트(두산)이 210만 달러에 재계약 도장을 찍으면서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외국인 타자 중에는 한화 로사리오가 150만 달러로 가장 높다.

올 시즌 등록 선수의 평균 나이는 27.5세로 지난해보다 0.1세 높아졌다. 평균 키는 183cm, 평균 몸무게는 87kg다.

등록 마감일인 1월 31일 기준으로만 42세 8개월 23일인 KIA 최영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령 선수 자리를 지켰다. 반면 KIA의 신인 김석환과 NC 신인 이재용은 만 17세 11개월 3일의 나이로 최연소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06년 두산 최주환과 타이틀을 이루며 역대 최연소 선수로 등록됐다. 최고령과 최연소 선수의 나이 차는 24세 9개월 20일에 이른다.

두산 장민익(2m7cm)이 올해도 최장신 타이틀을 지닌 가운데 역대 최단신 자리를 지켜왔던 KIA 김진민(1m65cm)이 8년 만에 자리를 내줬다. 삼성 김성윤이 1m63cm로 최단신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KIA 서동욱, 두산 국해성, 넥센 윤영삼 등 8명이 우투양타(스위치히터) 선수로 등록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산악인 김홍빈, 평창패럴림픽 金 도전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3·광주시산악연맹 부회장) 대장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한국 대표로 출전, 금빛 메달을 노린다.

김홍빈은 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제 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알파인스키 남자 알파인회전 스탠딩 부문에 경기도대표로 출전, 1분51초61의 기록으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김홍빈은 내년 열리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 국가대표로 평창동계패럴림픽 출전 자격을 얻게 됐다. 50대에 두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김홍빈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장애인스키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특히 2002년에는 미국 솔트레이크

장애인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한 바 있다. 김홍빈은 산악활동을 기반으로 국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고 지난 2012년부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다시 출전, 압도적 기량으로 금빛 레이스를 펼쳐왔다.

한편, 순천 북성고 유승협(19·지적장애)도 이날 열린 ‘남자 빙상 1000m IDD 청년부’ 동호인부 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승협은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까지 4연속 금메달에 도전했다.

광주에서는 이정수(11·용두초 5년)가 9일 서울 동천빙상장에서는 열린 ‘남자 1000m OPEN’(번측)에서 금메달을 획득, 전남(500m·급)에 이어 2관왕에 올랐고 김진영(여·19·문정여고 3년)도 ‘여자 500·1000m IDD(소년부,청년부)’에서 금메달을 따 2관왕을 달성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 KIA 연봉 인상률 최고 ‘FA 양극화’ 때문

KIA의 최고 연봉상승률 뒤에는 ‘FA 양극화’가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일 2017년 KBO리그 소속선수 등록 인원 및 연봉 등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0개 구단 중 최고의 평균연봉 상승률을 기록한 팀은 KIA로 나타났다.

KIA는 연봉 총액이 지난해 59억9900만원에서 96억8400만원으로 경총 뛰어 올랐다. 평균연봉도 1억2243만원에서 1억6989만원으로 38.8% 증가했다.

1군 엔트리 등록 기준인 27명을 놓고 따진 상위 27위 평균연봉 증가율은 전체 평균연봉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1억9611만원에서 3억1837만원으로 상승하면서 무려 62.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5-8-8’로 순위가 하락하면서 덩달아 추락했던 연봉도 김태균 감독 부임 이후 순위가 7위에서 5위로 뛰어오르며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연봉 혼풍’이 분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FA 양극화’에 따른 찬바람도 불었다.

‘FA 3인방’이 평균연봉 상승률을 이

## 최형우·양현종 등 7명 66억...전체의 77% 차지



끌었다. 첫 100억 벽을 깨고 삼성에서 영입한 최형우와 1년 계약을 한 양현종이 15억원으로 탐내 연봉 공동 1위다. 이어 윤석민(12억5000만원), 이범호(6억5000만원)이 연봉 상위권에 랭크됐다. FA 계약을 통해 ‘타이거즈맨’으로 남는 나지완과 FA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김주찬이 각각 6억원이다. 출장경기 징계에

서 벗어난 임창용도 5억원으로 연봉이 회복되면서 웃었다.

이들 7명의 연봉만 놓고 보면 확실히 KIA가 스토브리그의 ‘큰 손’이 맞다. 상위 7명의 연봉 총액은 66억원으로 상위 27명의 연봉 총액 85억9600만원의 77%를 차지했다.

5억원의 임창용에 이어 탐내 연봉 8위

는 2억2000만원의 안치홍이다. 이어 서동욱(1억5000만원), 최영필(1억4000만원), 김진우(1억2000만원), 김광수·김주형·심동섭(이상 1억1000만원), 이홍구(1억원)가 자리를 하고 있다. 16위 신종길(9800만원)부터는 역대연봉에서 벗어났다. 상위 27위 최저 연봉은 김다원·이성우·한기주의 6000만원이다.

상위 7인의 평균 연봉은 9억4000만원, 이를 제외한 20명의 평균연봉은 9980만원이다.

전체 평균 연봉뿐만 아니라 1군을 기준으로 한 상위 27위 기준 평균 연봉에서도 ‘빈부 격차’가 크다. 이런 온도차 때문에 뜨거웠던 스토브리그 분위기와 달리 KIA의 전체적인 연봉 협상 분위기는 냉랭했다. 배당금 없던 ‘가을잔치’와 일드카드 결정전도 연봉협상의 악재로 작용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2017시즌 연봉 협상이었다.

FA로 전력을 강화한 KIA가 그에 걸맞은 성적을 내며, 내년 시즌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평창올림픽 성화봉 공개 9일 강원도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언론설명회에서 성화봉과 주자 유니폼이 공개되고 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변천사와 전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변종문(이상 현 조직위 담당관)이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 김태환(왼쪽)에게 성화봉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호 웨이버 공시... 위기인가 기회인가

### 찾는 팀 없으면 마이너행...스프링캠프도 초청선수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가 내야수 박병호(31)를 정식으로 웨이버 공시했다.

미네소타 지역 신문 ‘미네소타 파이어나어프레스’ 마크 바라다노 기자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네소타 구단이 지난주 방출되기 처분된 박병호를 웨이버 공시했다”고 공개했다.

방출대기는 구단이 신규 선수 영입 등으로 팀 40인 로스터에 새롭게 자리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절차다. 이때 방출대기된 선수는 소속팀을 제외한 메이저리그 29개 구단에서 영입 가능한 ‘웨이버’ 상태가 된다.

박병호는 앞선 4일 방출대기됐지만, 미네소타는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웨이버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웨이버 상태가 된 박병호를 원하는

구단은 그의 남은 3년 계약과 연봉을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영입할 수 있다. 이때 2개 이상의 구단이 영입을 원하면, 지난 시즌 순위가 낮은 팀에 우선권을 준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미네소타와 4년 총액 1200만 달러(약 137억원)에 계약한 박병호는 아직 3년의 계약과 잔여 연봉 875만 달러(약 100억원)가 남았다.

박병호는 지난해 부상과 부진 속에 62경기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4타점을 올렸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홈런 타자가 인기를 잃어가는 메이저리그 사정을 고려하면, 박병호를 영입할 구단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그러면 박병호는 마이너리그로 가야 한다. 스프링캠프 역시 초청선수 신분으로 참가해야 할 처지다.

/연합뉴스

## KIA 마스코트 이름 지어주세요

### 22일까지 공모

KIA타이거즈가 새로운 마스코트의 이름을 공모한다.

올 시즌 BI 및 유니폼 디자인을 변경한 KIA가 9일 마스코트를 새로 선보였다. 마스코트는 용맹하고 강인한 호랑이를 의인화한 형태로, 기본 마스코트 외에 투구·배팅·수비·응원 등 다양한 동작을 표현한 마스코트도 함께 제작해 역동성을 살렸다.

새 마스코트의 이름을 찾는 공모전은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2개 마스코트의 이름과 그에 대한 설명, 성격, 특징 등의 스토리텔링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KIA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팝업창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lovekiatiger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2017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시즌권(중앙데이블 2인석)과 유니폼(홈/원정 각 1벌)이 상품으로 주어진다. 이밖에 우수상 10명에게는 홈 유니폼과 모자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KIA 홈페이지 팝업창을 참고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WBC 대표팀 “투수 예비엔트리 제출 안해”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서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투수 예비 엔트리 제도’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WBC 사무국은 9일 대회에 나서는 16개국 최종 엔트리와 투수 예비 엔트리를 공개했다.

WBC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28명의 최종 엔트리와 함께 유희관(두산), 정우람(한화), 임창민·최금강(이상 NC), 김세현·신재영(이상 넥센), 손승락(롯데), 윤희상(SK) 등 투수 예비 엔트리 8명의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착오였다.

김민식 감독은 “최종 엔트리 28명이 WBC 대회 끝까지 치렀으면 한다. 선수 사기를 고려해도 예비 엔트리는 제출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KBO도 “김 감독의 뜻에 따라 예비 엔트리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무국에서

엔트리를 공개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수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WBC는 최대 10명까지 투수 예비 엔트리를 제출하고 각 라운드 끝날 때마다 최대 2명까지 투수 엔트리를 교체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팀 사기’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WBC는 투수 예비 엔트리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상자가 나오면 ‘50인 예비 엔트리’ 안에서 선수 변동이 가능하다. 투수 예비 로스터는 부상 없이도 투수를 바꾸는 제도다. WBC 대회 전체를 소화하는 걸 꺼리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추후 합류’를 독려하는 의도를 담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은 국외파 투수 중 WBC에 나설 추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